

# 주간 통일정세

2018-02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1.6	장웅 北 IOC위원 “평창 참가할듯”...IOC와 논의차 스위스행 전망(연합뉴스)
	1.7	北통신, 남북회담 앞두고 “민족공조 노력해야 관계개선 결실”(연합뉴스)
	1.8	北매체, 회담 D-1 “평화적 환경 마련이 선차적 요구” 주장(연합뉴스)
		北 최룡해, 송도원식료공장 현장시찰(연합뉴스)
	1.9	장웅 北 IOC위원 “평창 참가 규모 IOC가 발표할 것”(연합뉴스)
		北리선권 “성실한 자세로 회담...은 거레에 새해 첫 선물 드리자”(연합뉴스) 北매체 “민족적 화해 분위기 조성 중요” 주장(연합뉴스)
	1.10	北신문, 남북회담 합의 다음날 ‘민족지주’ 강조(연합뉴스)
1.12	北김정은 “적들이 10년·100년 제재해도 뚫지 못할 난관 없어”(연합뉴스)	
군사	1.10	서해 軍 통신선 정상가동 시작...남북간 오전·오후 시험통신(연합뉴스)
		“미군, 올해 대북 땅굴 전투 훈련 강화...도하 장비도 구매”(연합뉴스)
	1.11	美, 스텔스폭격기 B-2 3대 괌 전진배치...北 압박 조치 가능성(연합뉴스)
	1.12	“北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 굴착활동 가속”(연합뉴스)
경제	1.6	北학자 “국산화는 비정상적 정상화...제재에도 경제는 상승”(연합뉴스)
		北, 작년 몽골서 담배 수입 급증...양국 교역규모 최대(연합뉴스)
	1.8	“가상화폐 채굴지사·김일성대 서버로 이전하는 악성코드 발견”(연합뉴스)
1.9	“지난해 北 선박 움직임 크게 줄어...대북제재 영향인 듯”	
사회 문화	1.8	“가상화폐 채굴지사·김일성대 서버로 이전하는 악성코드 발견”(연합뉴스)
	1.9	VOA “개성공단서 트럭 하역작업 추정 모습 포착”(연합뉴스) 北교과서 수록 태블릿 PC에 비친 교과내용...“충성교육 철저”(연합뉴스)
외교 국방	1.7	파나마,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 등록 취소절차 착수(연합뉴스)
	1.8	北신문 “美 괴수로 하는 반동세력, 침략과 내정간섭 노골적”(연합뉴스)
		줄줄이 문닫는 중국내 북한식당...곳곳서 돌연 “휴업공고”(연합뉴스)
		北통신, ‘뱅크버 외교장관회의’ 비난...“美 정세격화 놀음”(연합뉴스)
	1.9	“EU, 北 개인 16명·기관 1곳 제재명단에 추가”(연합뉴스)
		北신문 “트럼프는 임기 첫해 벌써 최악의 대통령” 비난(연합뉴스)
1.10	北신문 “美 전략적 선택 바로해야”(연합뉴스) 주러 북한 대사, 러시아 공산당수 면담...“남북대화 지지 감사”(연합뉴스)	

1.11	트럼프 “적절한 시기·상황에 북미회담 여는 것에 개방적”(연합뉴스)
	北, 美 ‘종교자유 우려국’ 재지정에 “모략 책동” 비난(연합뉴스)
1.12	푸틴 “김정은은 소양있고 성숙한 정치인…핵개발 과제 해결”(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1.12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박태성, 최동명, 조용원	-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8. 1. 12.

##### ■ 北 김정은 “적들이 10년·100년 제재해도 뚫지못할 난관 없어”(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며 박태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동명 당 중앙위 부장,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혁명사적관, 과학전시관 등을 둘러본 뒤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김 위원장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우리가 육성한 든든한 과학기술 역량과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있기에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주장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1. 8.

##### ■ 北 최룡해, 송도원식료공장 현장시찰(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룡해 동지가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현지에서 요해(파악)했다”며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노동자)의 투쟁 성과를 적극 고무해주었다”고 보도함.
- 최 부위원장은 갈마식료공장도 방문해 “인민들에게 맛있는 물고기 가공품들을 안겨주려는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함.
- 최 부위원장의 이번 현장시찰은 올해 들어 첫 공식활동으로, 특히 지난해 10월 7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첫 단독 현장시찰임.

2018. 1. 9.

■ 장웅 北 IOC위원 “평창 참가 규모 IOC가 발표할 것”(연합뉴스)

-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IOC와 참가 규모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현지시간) 스위스에 도착해, 오후 6시 40분경 제네바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온 뒤 IOC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곧바로 로잔으로 이동함.
- 장 위원은 평창에 보낼 선수단 규모를 묻는 말에 “IOC에 물어보라. IOC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출전권을 따냈다가 참가 신청 기한이 지나 무효가 된 피겨 스케이팅 페어 외에 추가로 선수들을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음.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1. 6.

■ 장웅 北 IOC위원 “평창 참가할듯”…IOC와 논의차 스위스행 전망(연합뉴스)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6일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 북한 선수의 참가를 시사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장 위원은 이날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북한이 평창 올림픽의 출전권을 확보한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에 북한 선수가 참가할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참가할 것 같다”고 응답함.
- 그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민족의 제전이니까 잘 돼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북한이 올림픽 참가 시사 등으로 한미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북과 남이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도 있겠지만, 민족 내부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8. 1. 7.

■ 北통신, 남북회담 앞두고 “민족공조 노력해야 관계개선 결실”(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관계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앙통신은 7일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시기 북남관계의 전 과정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룩할 수 없으며 쌍방이 민족공조를 지향하여 노력할 때에만 관계개선에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관계 개선의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전제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말로써가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실천 행동으로 안받침(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힘.

## 2018. 1. 8.

### ■ 北매체, 회담 D-1 “평화적 환경 마련이 선차적 요구”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선전매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환경 마련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거듭 주장함.
-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라고 주장함.
-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 제목의 다른 글에서 “지금 조선반도는 언제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지 모를 초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의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북남 사이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서’ 제목의 글을 통해 “동족을 우선시하고 동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지만,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면서 동족과 대결하면 대화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어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된다”고 강조함.

## 2018. 1. 9.

### ■ 北리선권 “성실한 자세로 회담…온 겨레에 새해 첫 선물 드리자”(연합뉴스)

- 남북 고위급회담의 리선권 북측 단장은 9일 “남북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온 겨레에게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데 어떤가 생각한다”고 언급함.

- 그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북남대화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 열망은 비유해서 말하면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더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얼지도, 쉬지도 않고 또 그 강렬함에 의해 북남 고위급회담이라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힘.

#### ■ 北매체 “민족적 화해 분위기 조성 중요”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 9일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이 “북남(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 전제”이고, “중요한 것은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내왕(왕래),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푸는 것”이라며 “교류를 차단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각종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려야 하며 거치장스러운(거추장스러운) 대결의 유물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 논의와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아울러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명철의 글을 게재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함.

#### ■ 北신문, 남북회담 합의 다음날 ‘민족자주’ 강조(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0일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어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며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야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 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며 “북과 남은 마주 앉아 우리민족끼리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2. 군사

###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1. 10.

■ 서해 軍 통신선 정상가동 시작…남북 간 오전·오후 시험통신(연합뉴스)

- 북한이 단절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함에 따라 남북 군 당국은 10일 서해 군 통신선의 정상가동에 들어감.
-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약 5분간 서해 군 통신선 점검을 위한 시험통신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며 “시험통신간 특이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힘.

2018. 1. 12.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갯도 굴착활동 가속”(연합뉴스)

-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내내 서쪽 갯도 입구 주변에서 광차와 인력들이 목격됐고, 파낸 흙을 쌓아둔 흙더미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며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갯도에서 굴착활동에 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서쪽 갯도 입구에 약 9대의 광차가 있고, 흙더미 위에는 새로운 길이 난 것이 보인다고 설명함.
- 또 핵실험장 남쪽 지원 단지 안에는 100~120명가량의 사람이 7개로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임.

## 나. 한국 및 미국

2018. 1. 10.

■ “미군, 올해 대북 땅굴 전투 훈련 강화…도하 장비도 구매”(연합뉴스)

-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9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올해 훈련에는 101 공중강습사단, 82 공정사단이 포함됐으며, 훈련은 연중 해당 부대 기지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임.
- NPR은 또 “지난달에는 미 육군 5기갑 연대 소속의 미군 병사들이 서울 북쪽에 있는 반쯤 버려진 기지에 있는 병커로 들어가 훈련했다”며 “이 병커는 화학무기 실험실을 가상한 것으로, 병사들은 특수 교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0.5 마일(805m) 길이의 땅굴로 기어들어갔다”고 소개함.

- 아울러 “미 국방부는 수천 명의 병력을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 야간 투시경 등 땅굴 작전에 필요한 특수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난 몇 달간 패트리엇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조용히 추가로 비축했다”고 전함.

2018. 1. 11.

■ **美, 스텔스폭격기 B-2 3대 괌 전진배치…北 압박 조치 가능성(연합뉴스)**

- 11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공군은 최근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던 B-2 3대와 약 200명의 병력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함.
-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2 3대의 괌 배치가 미 전략사령부의 정례적인 폭격기 순환 배치에 따른 것으로, ‘단기 배치’라고 밝혔지만, 괌에 머무를 구체적인 기간은 공개하지 않음.
- 미 공군이 괌에 B-2 3대를 배치한 것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남북 간 대화 테이블에 나온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여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임.

### 3. 경제

####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경제 실태

2018. 1. 6.

■ **北학자 “국산화는 비정상의 정상화…제재에도 경제는 상승”(연합뉴스)**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 소장이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5일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국산화’ 정책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 제재의 효과를 반박함.
- 인터뷰에서 김 소장은 북한이 경제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조치를 거론하며 “조선(북한) 경제는 쇠퇴가 아닌 상승의 길을 착실히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내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원료와 자재를 수입했었다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고 있는 국산화 바람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함.

- 김 소장은 석유 대신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인 ‘탄소하나화학공업’이 창설되면 “원료, 자재의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가까운 앞날에 그것을 공업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안북도 북창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점화에 중유를 사용하지 않는 발전설비 신설공사가 ‘마감 단계’라며 “제재 책동에 파열구를 내는 과학기술 성과”라고 소개함.

## 2018. 1. 8.

### ■ “가상화폐 채굴지사-김일성대 서버로 이전하는 악성코드 발견”(연합뉴스)

- 가상화폐 가운데 하나인 ‘모네로(Monero)’ 채굴을 지시하고 채굴된 모네로를 북한으로 송금토록 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에일리언볼트’ (Alien Vault)를 인용해 보도함.
- 에일리언볼트에 따르면 이 악성 코드는 감염된 컴퓨터에 모네로를 채굴하도록 한 뒤 채굴된 모네로를 자동으로 북한 김일성대학 서버로 보내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해커가 사용하는 김일성대학 서버 암호 'KJU'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니셜로 보인다고 WSJ은 분석함.
- WSJ은 악성 코드에 대해 “북한 정권이나 (배후가 북한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상쇄하기 위한 대체 돈벌이 방안을 찾고 있는 북한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함.

## 2018. 1. 9.

### ■ “지난해 北 선박 움직임 크게 줄어…대북제재 영향인 듯”(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박 감시·관리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 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의 선박은 모두 245척이었다고 밝힘.
- 특히 VOA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외 항구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 선박은 152척이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는 93척으로 줄었다며 북한 선박의

움직임 감소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함.

####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1. 6.

- **北, 작년 몽골서 담배 수입 급증…양국 교역규모 최대(연합뉴스)**
  - 북한이 작년 몽골로부터 담배를 집중적으로 수입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코트라가 6일 밝힘.
  -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이 작성한 '몽골-북한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양국 간 총 교역규모는 229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는데, 몽골의 대북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192만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2.1% 증가한 37만달러를 기록함.
  - 무역관은 “몽골의 대북 수출품목 1위는 담배인데 금액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에서 92.2%를 차지했고 2016년에도 담배가 수출 1위였다”고 밝혔으며, “2017년 11월 기준 몽골의 대북 수입 1위 품목은 의약품으로 전체 수입액의 78%를 차지”한다고 언급함.

### 4.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라. 사회 동향

2018. 1. 9.

■ VOA “개성공단서 트럭 하역작업 추정 모습 포착”(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개성공단에서 대형 트럭이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및 공단 내에서 버스들이 움직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과 차량의 모습 등 위성사진을 통해 무단 가동의 정확이 확인됐다고 보도함.
- VOA가 지난해 11월 30일 개성공단을 촬영한 ‘디지털글로브’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공단 중심부에 있는 한 공장 건물의 외벽에 맞닿은 형태로 주차된 약 13m 길이의 트럭이 발견됐는데, VOA는 이 트럭이 정차한 위치가 건물 내부로 통하는 대형 통로인 점으로 미뤄 트럭이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고, 주변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와 그림자도 포착됐다고 전함.
- VOA는 또 이 공장 건물에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건물 앞 공터에도 약 5m 길이의 하얀색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그 외 공단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이 이동하거나 쓰레기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사라지는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전함.

■ 北교과서 수록 태블릿 PC에 비친 교과내용…“충성교육 철저”(연합뉴스)

- 북한의 교육용 태블릿 PC를 아사히신문이 입수, 수록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 등에 대한 충성교육이 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함.
- 아사히는 태블릿 PC에 북한에서 ‘백두산 3대 장군’으로 불리는 이들 부자와 김정숙의 생애를 기록한 3권의 ‘혁명 역사’가 수록돼 있었다고 전함.
- 태블릿 PC 제품명은 ‘관형 컴퓨터 아침’이었으며, 중국산으로 인터넷은 이용할 수 없고, “가격은 대당 480 달러(약 51만원)로 평양 모란봉지구 전문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 평균 월급이 4천~5천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손에 넣기 어려우며 구입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은 종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고 전함.

## 5.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8. 1. 8.

■ 北신문 “美 괴수로 하는 반동세력, 침략과 내정간섭 노골적”(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8일 '주체 조선의 확고부동한 대외정책적 입장'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은 평화수호의 간판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

- 침략 무력을 들이밀면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평화적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오늘의 국제정세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세력에 의해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 책동이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는 불공평한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함.
  - 그러면서 “국제 반동세력의 아성인 미국 본토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에 의해 지금 미국 주도의 불공평한 국제질서가 밀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통신,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비난…“美, 정세격화 높음”(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6·25전쟁 참전국 위주로 열릴 예정인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1월 중순 미국이 캐나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조선전쟁 참전국 외무장 회의와 국방장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으려고 피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국제적으로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분위기를 더욱 고취하려는 미국의 행태는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려는 위험한 놀음”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조선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추종국가들은 미국을 믿고 분별없이 허둥대다가는 반드시 쓰디쓴 후회만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함.

2018. 1. 9.

■ **北신문 “트럼프는 임기 첫해 벌써 최악의 대통령” 비난(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9일 '새로운 전략국가의 등장에 당황망조한 패배자들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성과 가운데 하나로 대북제재 강화를 꼽은 것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전략국가로 급부상시킨 패배자들의 얼빠진 궤변”이라고 비난함.
- 또 “미 행정부가 지난해에 한 일이란 본토 안전과 자국민들의 운명을 도박 밀천으로 내 대고 전대미문의 반공화국 압살 소동에 광분함으로써 미국본토 전역을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완전히 놓이게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트럼프는 임기 첫해에 벌써 가장 실패한 최악의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유례없는 외교적 실패를 외교적 성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책들의 처지가 참으로 궁색하다”고 주장함.

## 2018. 1. 10.

### ■ 北신문 “美, 전략적 선택 바로해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은 전략적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객쩍은 허세와 무분별한 망동으로 자멸만을 재촉하지 말고 명실상부한 핵 강국인 우리와 공존할 방도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미국의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 군사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모험적인 불장난을 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할 수 있다”고 위협함.
-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통화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등 대북 유화적 발언을 했지만, 북한 매체는 대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음.

## 2018. 1. 11.

### ■ 트럼프 “적절한 시기·상황에 북미회담 여는 것에 개방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을 여는 데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함.
- 그는 특히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함.



■ 北, 美 ‘종교자유 우려국’ 재지정에 “모략 책동” 비난(연합뉴스)

-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터무니없는 종교자유를 떠들어대며 우리의 존엄 높은 공화국을 모독하고 신앙인들의 신념을 흔들 어보려고 발광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반공화국 제재·압살 책동에 신성한 종교까지 도용하며 분별을 잃고 설쳐대는 미국의 반종교적이고 야만적인 망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미국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높음을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면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걸고 드는 모략 책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 종교인들과 연대하여 미국의 횡포한 전횡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나. 북·중 관계

2018. 1. 8.

■ 줄줄이 문닫는 중국내 북한식당…곳곳서 돌연 “휴업공고”(연합뉴스)

- 중국 당국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계획에 따라 중국 내 북한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음.
-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기업들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명령한 가운데 북중 접경지를 비롯해 베이징, 선양, 상하이 등지의 북한식당들이 대거 ‘휴업’ 공고를 낸 것으로 8일 확인됨.
- 북한기업 폐쇄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동북3성 중심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코리안타운’으로 불리는 시타(西塔)지역에 위치한 북한식당 ‘모란관’이 돌연 출입구에 휴업을 공고하고 영업을 중단함.

##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라. 북·러 관계

2018. 1. 10.



■ 주러 북한 대사, 러시아 공산당수 면담…“남북대화 지지 감사”(연합뉴스)

-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9일(현지시간) 젤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당수와 면담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러시아 공산당은 자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가노프 당수와 김 대사의 면담 사실을 소개하면서 “양국 및 공산당과 노동당 간 협력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함.
- 러시아 하원에서 러시아-북한 의원 친선 그룹 간사를 맡고 있는 카즈벡 타이사예프 공산당 의원도 타스 통신 등에 면담 내용을 전하면서 남북한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주가노프 당수를 포함한 러시아 인사들이 지지해 준 데 대해 김 대사가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으며, 타이사예프는 “남북 대화는 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고 강조함.

2018. 1. 12.

■ 푸틴 “김정은은 소양있고 성숙한 정치인…핵개발 과제 해결”(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안전 확보라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한 “소양 있고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신문의 날’(13일)을 앞두고 러시아 내 신문사 및 통신사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새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힘.
- 푸틴은 “나는 김정은이 당연히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했다”면서 “핵폭탄을 갖고 있고 사실상 전 세계 어느 지점, 최소한 적의 영토 모든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3천km나 되는 글로벌 사거리의 로켓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 “이제 북한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하고 진정 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면서 “그는 전적으로 소양이 있고 이미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분석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1. 7.

■ 파나마,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 등록 취소절차 착수(연합뉴스)

- 6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이 북한

- 연계 의심 선박인 자국 선적의 5천100t급 유류운반선 ‘코티(KOTI)’호에 대한 상업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데, 코티호는 지난달 서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 등에 정유제품을 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평택·당진항에 억류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
- 해사청은 또 다른 자국 선적의 ‘오리엔트 셴위’(ORIENT SHENYU) 호에 대해서도 선박 등록 취소절차를 개시했는데, 오리엔트 셴위호는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화물선으로 실소유주가 북한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유엔결의 2321호를 위반해 등록이 취소되는 것으로 전해짐.
  - 해사청은 성명에서 “핵무기의 확산과 핵 폐기 프로그램이 파나마와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민감한 주제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의 상업 선박 일반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힘.

## 2018. 1. 9.

### ■ “EU, 北 개인 16명·기관 1곳 제재명단에 추가”(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이들 매체에 따르면 EU의 정책 결정기관인 EU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을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목록에 추가함.
- EU는 북한의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독자적인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추가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힘.

## Ⅱ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1.07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연합뉴스)
	01.10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오늘 방미...남북합의 설명하고 대응협의(연합뉴스)	
		미국발 수입규제 ‘쓰나미’ 임박...통상차관보 방미, 막바지 설득(연합뉴스)	
	01.11	펜스 美부통령, 文대통령·아베 만난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1.08		中 “남북고위급회담, 긴장완화의 큰 시작...6자회담 재개 기대”(연합뉴스)
	01.09		중국 언론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서광”(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1.08	한일 “한반도평화 동력 북핵 평화적 해결로 연결 노력”(연합뉴스)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위안부 합의 입장 교환(연합뉴스)	
	01.09	강경화 “위안부합의, 문제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것”(연합뉴스)	

			日외무상 “한국의 추가 조치 요구, 절대 수용불가”...공식 항의(연합뉴스)
	01.10		日관방 “위안부 합의는 최종·불가역적...1mm도 움직일 수 없다”(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한국</b>	<b>러시아</b>
한러 관계	01.10		러 외무부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등 남북 합의 환영”(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b>분류</b>	<b>일자</b>	<b>미국</b>	<b>중국</b>
	01.08	“트럼프, 중국 등 겨냥 강경무역 조치 곧 공개”(연합뉴스)	
미중 관계	01.11		中관영언론 “남북대화 향해, 美의지에 달려...국제사회 지지필요”(연합뉴스)
	01.12		中상무부 “美일방주의에 행동으로 맞설 준비...필요조치 할 것”(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일본</b>
미일 관계	01.10	미 정부, 일본에 1400억원 요격미사일 판매 승인...“북핵 방어용”(연합뉴스)	
			일본 방위상-미 태평양 사령관 ‘대북압력 강화’ 재확인(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미국</b>	<b>러시아</b>
미러 관계	01.10	시리아내 러시아 기지 ‘드론’ 공격 두고 미-러 공방(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1.07	중해경선, 중일 영유권 분쟁지 센카쿠 해역 진입...올해 처음(연합뉴스)	
	01.12	중국방부 "다오위다오에 日군함 들어와 출동...日이 사실왜곡"(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01.11	"러-중 외교 당국자, 한반도 문제 해결 공조 지속 합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8. 01. 07.

##### ■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김정은과 통화도 “전혀 문제없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늘 대화를 믿는다”며 “트럼프 없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알듯이 우리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함.
- 또 ‘김정은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김 위원장과의 통화 등 직접 대화 의향이 ‘무조건 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2018. 01. 10.

##### ■ 이도훈 한반도본부장 오늘 방미…남북합의 설명하고 대응협의(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수석대표 협의 등을 위해 10일 미국을 방문함.
- 외교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카운터파트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를 갖음. 이 본부장은 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 내 북핵·북한 관련 핵심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함.
- 이 본부장은 조셉 윤 대표 등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및 고위급 대표단 파견, 남북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한 9일의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대응을 협의함.

##### ■ 미국발 수입규제 ‘쓰나미’ 임박…통상차관보 방미, 막바지 설득(연합뉴스)

-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섬.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전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다시 설명하려고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함.
-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모두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 2018. 01. 11.

### ■ 평창 오는 펜스 美부통령, 文대통령·아베 만난다(연합뉴스)

-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함.
-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알래스카에도 들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을 평창에 파견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 동맹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우리를 보낸다는 것이 숨은 메시지”라고 설명함.

## 나. 한·중 관계

## 2018. 01. 08.

### ■ 中 “남북고위급회담, 긴장완화의 큰 시작·6자회담 재개 기대”(연합뉴스)

- 8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자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근래 남북이 고위급 당국회담 참석자 명단을 교환한 데 대해 중국 학자들이 이를 남북 관계의 급속한 회복 신호로 본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회담은 2015년 12월 이후 첫 남북 대화”라고 의미를 부여함.
-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환영했으며 중국 전문가들도 이 회담이 6자 회담 재개에 시동을 걸어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함.



2018. 01. 09.

■ 중국 언론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서광”(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9일 열린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반도 정세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면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진행 상황을 매시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임. CCTV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여 만에 열린 것이라면서 연초부터 남북 양측이 선의를 표명해 상호 접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서광이 비치게 됐다고 평가함.
- 그러나 이 매체는 이런 선의가 유지되고 고위급 회담 후 남북 간 교류와 소통이 지속하며 한반도 긴장 정세가 대치 국면에서 빠져나오려면 양측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다. 한·일 관계

2018. 01. 08.

■ 한일 “한반도평화 동력 북핵 평화적 해결로 연결 노력”(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남북 고위 당국회담 등 최근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평화의 모멘텀(동력)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함.
- 외교부는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소개함.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위안부 합의 입장 교환(연합뉴스)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양국이 8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함.
-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우리 정부가 이르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계기에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한국의 합의 변경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8. 01. 09.

### ■ 강경화 “위안부합의, 문제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것”(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음.
-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함. 이와 함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에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해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도 당장 해산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10억 엔' 반환도 보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 日외무상 “한국의 추가 조치 요구, 절대 수용불가”…공식 항의(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9일 한국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함.
-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외무성 기자단에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함.
- 그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양국의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하겠다”고 말함.

## 2018. 01. 10.

■ **日관방 “위안부 합의는 최종·불가역적…1mm도 움직일 수 없다”(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한국 측이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10일 재차 밝힘.
- 스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합의와 관련, 잘못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답함.
- 그는 “합의를 착실히 실행해 가는 것, 이것이 양국에 요구된다”며 “우리나라는 확실히 실행에 옮겼다”라고 말함.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1mm도 움직이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함.

라. 한·러 관계

2018. 01. 10.

■ **러 외무부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등 남북 합의 환영”(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등에 관한 남북한 당국자 회담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함.
-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9일 판문점 남북한 대표 회담에서 이루어진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 합의 등을 환영한다”고 밝힘.
- 외무부는 “이 합의 이행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지역 안전 보장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남북한의 대화 재개 행보를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함. 또 “이는 러시아가 계속 호소해온 평화적,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을 향한 유일하게 가능한 길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1. 08.

■ **트럼프, 중국 등 겨냥 강경무역 조치 곧 공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수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무역 조치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연설하는 연두교서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관련 부처 장관, 백악관 고문들을 만나 현재 계류 중인 많은 무역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2018. 01. 11.

■ **중관영언론 “남북대화 항배, 美의지에 달려…국제사회 지지필요”(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향후 남북 대화의 항배는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면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가 다시 '대항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함.
- 1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1면 논평을 통해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긴장 정세 완화와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군사 회담 개최가 결정됐다고 하며, 그 회담에 앞서 한미 양국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함.

2018. 01. 12.

■ **중상무부 “美일방주의에 행동으로 맞설 준비…필요조치 할 것”(연합뉴스)**

-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상무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중국 당국이 미국 국채매입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선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을 불러일으킴.
- 가오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조사는 자국 법과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무역의 틀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함.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함.

## 나. 미·일 관계

2018. 01. 10.

### ■ 미 정부, 일본에 1400억원 요격미사일 판매 승인...“북핵 방어용”(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갈수록 커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으로 일본에 총 1억3천300만 달러(약 1천426억 원) 어치의 탄도요격미사일 구매를 승인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이번에 판매하는 무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 2A’ 요격기에 사용할 미사일 4기와 관련 장비임. 레이스온 사(社)와 BAE 시스템스가 제조한 이 요격미사일은 일본이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 구축함과 지상 배치 이지스 시스템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음.
- 일본의 입장에서는 요격미사일 도입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미국산 군사장비 판매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조치라고 AP는 분석함.

### ■ 일본 방위상-미 태평양 사령관 ‘대북압력 강화’ 재확인(연합뉴스)

-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0일 미국 하와이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대북압력 강화 방안을 재확인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함.
- 이 자리에서 오노테라 방위상은 전날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힘. 그러면서 일본이 추진하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조기 도입에 협조를 요청함.
- 해리스 사령관은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조기 도입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함.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날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개량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4발을 일본에 판매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다. 미·러 관계

2018. 01. 10.

### ■ 시리아내 러시아 기지 ‘드론’ 공격 두고 마러 공방(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이루어진 시리아 내 자국 공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미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국이 반박하고 나섬.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대해 사용하는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맘 공군기지와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가 현지 반군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으나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밝힘.
- 애드리언 랭킨-갤러웨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전에도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유사한 장비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한 장비와 기술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미국 개입론을 반박함.

## 라. 중·일 관계

2018. 01. 07.

### ■ 中해경선, 중일 영유권 분쟁지 센카쿠 해역 진입…올해 처음(연합뉴스)

- 7일 오전 10시께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다포위다오<釣魚島>)열도 우오쓰리시마(魚釣島) 앞바다에 진입했다고 NHK가 전함.
-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이들 선박이 자국의 영해에 침입했다고 보고 “즉시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함.
-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자국 영해에 중국 해경선이 침입했다고 발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29차례 있었음.

2018. 01. 11.

### ■ 中국방부 “다오위다오에 日군함 들어와 출동…日이 사실왜곡”(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다포위다오<釣魚島>)열도의 자국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에 중국의 잠수함이 진입해 군함을 출동시켰다고 발표하자 중국 국방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섬.
- 12일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일본 정부가 중국 해군 함정이 센카쿠열도 다이쇼지마(大正島, 중국명 츠웨이위<赤尾嶼>) 앞바다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 2척이 지난 11일 다오위다오 츠웨이위 동북쪽 접속수역에 들어와 중국 해군 미사일호위함 '익양'호가 즉각 출동해서 추적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힘.
-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와 방위성은 중국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이 지난 10일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앞바다에 이어 11일 센카쿠열도의 다이쇼지마 바깥쪽 접속수역에서 수중 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힘.

## 마. 중·러 관계

2018. 01. 11.

### ■ 러·중 외교 당국자, 한반도 문제 해결 공조 지속 합의(연합뉴스)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0일(현지시간) 리후이(李輝) 주러 중국 대사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모르굴로프 차관이 이날 리 대사를 접견했다고 전하면서 “면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됐다”고 소개함.
- 외무부는 그러면서 “(양측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양국 노력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 바. 일·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0	북한인 폴란드 입국 건수 지난 2년간 급감(자유아시아방송)
	1.11	미 국무부 “수백만 북한주민들, 간절히 자유 원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8	북, 길주군에서 고아 자활사업 모색(자유아시아방송)
	1.9	북한 풍계리 출신 주민에 염색제 이상...핵실험 영향 가능성(연합뉴스) 갈렙선교회 “북한 공개재판 영상...성관계 동영상 촬영 후 유포되”(미국의소리)
	1.11	북한 17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 국가(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1.11	남북 훈풍에...미뤄둔 대북 인도지원 집행 가능성 커져(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9	이산가족 “공동보도문에 이산가족 문제 빠져 실망”(자유아시아방송)
		국경지역 북한 부모들의 새해 소망은 자녀 탈북(자유아시아방송)
		북한, 재미 실향민 단체에 이산가족 상봉 협조 약속(미국의소리)
	1.10	미국 내 탈북자들 “남북대화, 북한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돼”(미국의소리)
1.12	유엔, 北에 납북의심 등 강제실종 27건 정보 요청(연합뉴스)	
대북지원	1.6	유엔 “올해 北취약계층 지원에 1억1천400만 달러 필요”(자유아시아방송)
	1.8	美 CFK, 간염·결핵 등 50만 달러3대 새해 대북사업(자유아시아방송)
	1.10	유엔 “올해 북한 취약계층 식량난 더 심화할 것”(자유아시아방송)
	1.11	WFP 11월 대북 식량 지원, 전년 대비 절반 수준(미국의소리)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1. 10.

### ■ 북한인 폴란드 입국 건수 지난 2년간 급감(자유아시아방송)

- 폴란드 즉 뽑스카 국경경비대가 지난해 11월까지 집계한 북한인의 입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세를 보임. 유엔의 대북제재로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 실험 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와 재발급 중단으로 비롯된 현상임.
- 폴란드 국경경비대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인의 폴란드 입국 건수는 94건이라고 밝힘. 2015년 268건이던 북한인의 폴란드 입국 건수가 2016년 120건으로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 경향이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임.
- 이는 폴란드 외무부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입국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지방 정부에 노동허가증 연장이나 신규 발급 중단을 촉구했기 때문임.
- 폴란드 외무부 관계자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말 채택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송환하라는 규정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을 추진 중이라고 말함.

2018. 1. 11.

### ■ 미 국무부 “수백만 북한주민들, 간절히 자유 원해”(미국의소리)

- 미 국무부가 네 차례나 강제북송을 당한 탈북자의 사례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고발함. 험난한 탈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전함.
- 미국 국무부가 9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인 ‘웨어아메리카’에서 탈북자 지현아 씨의 사례를 소개함.
- 웨어아메리카는 국무부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촉발시키는 이야기나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공식 웹사이트임.
- 국무부는 지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수 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 역시 지 씨가 성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자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계속될 것이라는,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의 말을 덧붙임.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1. 8.

### ■북, 길주군에서 고아 자활사업 모색(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고아들을 위해 각 도소재지들에 ‘육아원’을 두고 있지만 운영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이런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당위원회가 ‘꽃제비’들을 도운 사실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새해를 맞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꽃제비(고아)들의 자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길주군 당위원회와 길주펄프공장 노동자들의 신선한 노력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 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나라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수용된 고아들은 필사적으로 중등학교를 탈출하고 있다”며 “생활시설이 얼마나 열악하면 아이들이 탈출을 해 꽃제비로 방황하겠느냐?”고 반문함.
- 이와 관련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길주군 꽃제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길주펄프공장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길주군 당위원회가 식량을, 여성동맹이 담요와 옷가지, 그릇을 마련해 주었다”고 말함.

2018. 1. 9.

### ■북한 풍계리 출신 주민에 염색체 이상...핵실험 영향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부근에 살다 2차 핵실험 뒤 탈북한 주민 2명에게서 피폭자에게 보이는 염색체 이상이 생겼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함.
- 신문은 한국의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전문가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들 탈북자의 피폭량은 높은 사람이 누적 394 밀리Sv(시벨트) 이하에 달해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선의 영향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길주군 출신 탈북자 30명에 대한 피폭검사를 한 결과 4명에게서 피폭이 의심

■ **갈렙선교회 “북한 공개재판 영상…성관계 동영상 촬영 후 유포죄”(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됨. 한국의 갈렙선교회가 최근 입수한 북한 내부 동영상의 일부로 북한사회가 자본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짐.
-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천안에 위치한 이 단체를 방문한 ‘VOA’ 기자에게 최근 북한에서 찍은 내부 동영상을 공개하며 자세히 설명함.
- 김성은 목사는 이 같은 모습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었다며, 최근 북한사회가 자본주의화 돼 가고 있는 게 두드러져 보인다고 말함.
- 2년 전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북한 전역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어린이 강제노동과 수용소 내 여성들이 건물을 짓는데 동원되는 모습, 장마당 모습 등 주민들의 생활상이 생생히 담겨 있음.
- 김성은 목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중 밀무역이 성행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말함.
- 김 목사는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 장마당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고, 밀무역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재로 인한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함. 하지만, 핵실험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음.

2018. 1. 11.

■ **북한, 17년 연속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 국가(미국의소리)**

- 북한이 17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됨. 북한은 모든 초점을 김 씨 일가 숭배에 맞추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미국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10일 ‘2018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국가로 꼽혔다고 말함.
- 이로써 북한은 17년 연속 이 단체가 발표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1. 11.

#### ■ 남북 훈풍에…미뤄둔 대북 인도지원 집행 가능성 커져(연합뉴스)

- 고위급회담 합의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3개월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집행이 의결돼 시기 결정만 남겨놓고 있던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국제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800만 달러의) 공여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1. 9.

##### ■ 이산가족 “공동보도문에 이산가족 문제 빠져 실망”(자유아시아방송)

- 9일 발표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빠지자 설 명절을 계기로 혈육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함.
- 9일 합의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빠짐. 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기조 발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과 함께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입장만 받아들임. 이에 따라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 ■ 국경지역 북한 부모들의 새해 소망은 자녀 탈북(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북중 국경지역 일부 주민들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은 탈북’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식들에게 탈북 비용을 마련해 주는 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임.
- 6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새해에 들어선 이후 국경인근에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주민들만 20여명이 넘는다”며 “이미 강을 건너 탈북했다 중국에서

체포돼 되돌아오는 주민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압록강을 건너기도 전에 체포되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사법기관들이 주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면서 “하지만 이번 탈북사건들은 인민반을 통해 먼저 공개했는데 국경방비가 철통 같으니 아예 압록강을 건널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짙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강이 얼어붙으면서 걸어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은 강을 건너 탈북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모들이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함.

#### ■ 북한, 재미 실향민 단체에 이산가족 상봉 협조 약속(미국의소리)

- 북한이 미국의 한인 실향민 단체가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가족의 생사확인파 고향 방문을 돕겠다는 뜻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알려줌.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북가주 이북5도연합회에 재미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이 단체의 백행기 회장이 밝힘.
- 백 회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관련 기관 등과 5년 간 논의 끝에 지난해 10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함.
-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자성남 대사 명의로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북가주 이북5도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상봉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지원을 해 줄 것을 대표부에 위임했다고 명시함.

### 2018. 1. 10.

#### ■ 미국 내 탈북자들 “남북대화, 북한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 돼”(미국의소리)

- 미국 내 탈북자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 특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 미주탈북자선교회의 마영애 회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 응한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냄.
- 마 회장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한 북한의 핵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하고 북한이 하자는 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된다고 말함.



2018. 1. 12.

■ 유엔, 北에 납북의심 등 강제실종 27건 정보 요청(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27건에 대한 조사와 정보제공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함.
-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함.
- 특히, 작년 5월 북한 전문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한 탈북민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사건도 실무그룹의 이번 정보제공 요청 사항에 포함됨.
-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앞서 통보받은 사건 19건에 대한 정보를 지난해 유엔에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해명에 이를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VOA’는 덧붙임.

## 5. 대북지원

2018. 1. 6.

■ 유엔 “올해 北취약계층 지원에 1억1천400만 달러 필요”(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올해 북한의 취약계층 1천800만 명을 지원하는데 1억1천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OCHA는 최근 공개한 ‘2018 세계인도주의지원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천800만 명이 충분한 영양분 섭취를 못 해 영양실조 상태라면서 이 중 1천300만 명에 대해 유엔 주요구호기구의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카린 홀쇼프 동아시아지역 사무소장은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 방송에 밝힘.
- 한편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조기경보-식량안보 및 농업에 관한 조기행동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거듭되는 농업실적의 부진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봄.



## 2018. 1. 8.

## ■美 CFK, 간염·결핵 등 50만 달러3대 새해 대북사업(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B형 간염 사업 확대와 결핵 및 식수 사업을 골자로 한 2018년 사업 계획을 밝힘.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과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방북 허가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는 물론 올해 계획했던 3대 주요 대북지원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단체가 최근 후원자들에게 보낸 활동 소식지에 따르면 3대 대북 주요 지원사업에 약 5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주요 사업들은 B형 간염 환자 치료, 정수 시설 설치, 결핵과 간염 요양소 개소임.

## 2018. 1. 10.

## ■유엔 “올해 북한 취약계층 식량난 더 심화할 것”(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은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일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과 벼랑 끝 전술 그리고 이로 인한 제재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사업은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대북지원 문제는 기부하는 정부와 원조 단체에 윤리적인 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또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북한의 도발로 취해진 대북 제재가 유엔 등 구호단체 모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아울러 이 기구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더욱 불확실하게 됐다고 지적함.

## 2018. 1. 11.

## ■WFP 11월 대북 식량 지원, 전년 대비 절반 수준(미국의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 11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함.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11월 북한 74개 시, 군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천668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 이는 전달에 지원한 2천631t에 비해 37% 감소한 규모임.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여 명에게 2천851t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41% 감소함.
  - WFP는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가 제한돼 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함.